

골품제에서 시작된 신라사회사에 대한 관심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에서 《신라사회사연구》까지

이기동

동국대 교수 · 한국사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시절을 통해서 줄곧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적 특성이랄까 비결이랄까 하는 문제였다. 한국사 가운데서도 고대사를 전공하기로 결심한 나로서는 당시 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신라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백제사나 고구려사 혹은 가야사, 발해사를 필생의 연구과제로 삼고서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연구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30여년 전만 해도 그것은 엄두가 안 나는 어려운 일이었다.

사회인류학 이론 원용한 연구

나의 관심이 신라사 중에서도 사회사 쪽에 쏠린 데는 1960년대의 연구경향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당시는 바야흐로 한국과 일본 양국 학계에서 골품제도 내지 골품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일기 시작했던 때였다. 사실 이 독특한 신분제도는 신라의 사회적 본질을 관통하는 굵은 계선(繫線)으로, 신라의 정치와 사회·경제 전반이 이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었다.

나는 이같은 학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왕의 연구성과를 하나씩 점검해갔다.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골품제도 성립문제로 잡은 나는 사회인류학의 이론을 원용하여 특히 진골에 대한 초월적인 신분으로서 성골의 대두를 추구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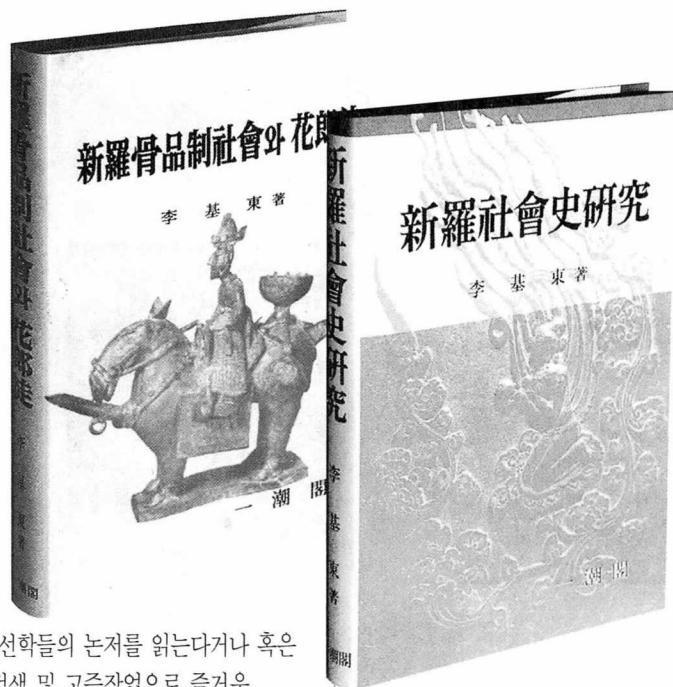
그 조그만 연구성과를 1970년 2월 대학원에 제출, 학계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 되었다.

나의 처녀작인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는 그로부터 꼭 10년 뒤인 1980년 11월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에서 연구총서의 한 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70년대에 발표한 글들을 묶은 논문집이었지만, 실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취직한 뒤 대략 4년 남짓한 기간에 서둘러 쓴 논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70년대 전반에 나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거의 정상적인 연구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에 취직하면서 비로소 시간의 여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곧 연구의욕은 소생했고,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신라사에 대한 논문을 쓰는 일에 매달렸다.

처녀작은 430여 쪽에 달하는 제법 두툽한 책이다. 하지만 정작 긴요한 골품제도에 대한 것은 제1편에 불과했고, 나머지 제2편과 제3편은 각기 신라 하대(下代) 사료에 대한 고증과 화랑도문제를 다룬 논문으로 채워져 있다. 그나마 제1편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도 석사학위 논문이 차지했다.

사실 그 동안 골품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었다. 다만 모처럼 시간적 여유를 만끽하게



된 나는 선학들의 논저를 읽는다거나 혹은 사료의 검색 및 고증작업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관심은 신라 하대에 전개된 정치·사회·문화적 대변동으로 차츰 옮겨지게 되었다. 이때 흥미를 느끼게 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쓴 논문들이 처녀작의 제2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골품제도에 대한 관심에서 다소간 떨어져 있던 시기에 화랑도 문제를 재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 뒤 나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찍이 화랑도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에 의해 신라시대의 '기속(奇俗)'이라고 하는, 다분히 민족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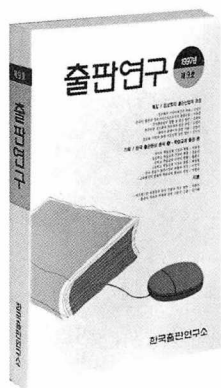
내지 민족학의 관점에서 큰 연구업적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화랑도가 어디까지나 골품제사회의 역사적 산물인 만큼, 이를 민족학 민족학의 문제의식만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즉 화랑도를 사회인류학 내지 사회학의 문제의식에서 접근해볼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그리하여 이를 재검토해본 결과, 화랑도가 골품제도와 더불어 6세기 법제화시대의 쌍생아(雙生兒)로 출현했으면서도 그 조직원리가 골품제적인

연구자료

출판연구 (제9호)

IMF체제 아래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는 출판계의 현안들을 점검한 《출판연구》 제9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정보화와 출판산업의 좌표>의 주제 아래 <정보화와 미디어환경의 변화>(김영석) <온라인 출판과 정보서비스업으로서의 출판산업>(이용준) <전자출판물의 현황 및 발전방안>(김희락) <출판유통 정보화의 현단계와 발전전망>(조병석) <출판사 홈페이지 운영사례>(김영지) <정보화



시대의 출판 전문인력 양성방안>(김두식)의 글을 실었다. 한국출판 현상을 분석하는 기획으로는 학습교재 출판의 시장현황과 전망을 다뤘다. (739-9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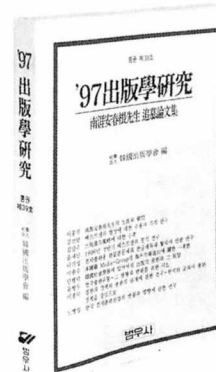
한국출판연구소/A5신/538면/비매품

연구자료

'97출판학 연구

(사)한국출판학회(회장 민병덕)가 발행하는 연간 연구지 《'97출판학회》가 통권 39호로 발간됐다. 이번호는 출판학자이자 서지학자인 고 안춘근씨 5주기를 맞아 추모 논문집으로 특집을 꾸렸다. 대전전문대 이중국 교수가 그의 생애와 학문을 정리했고, 생전에 가까웠던 지인들의 회고기도 함께 수록했다.

또 <베스트셀러 현상에 대한 수용자 의식연구>(김선남) <출판광고 전략에 대한



소고>(김양수) <1996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분석연구>(윤세민) <전자출판용 한글본문체와 한글체목체 활자에 관한 연구>(이기성) 등의 논문도 실었다. (717-2121)

범우사/A5신/490면/12,000원

예영커뮤니케이션은

독자들이 건강한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 매니아들과 음향시스템 운영자들의 인기서

음향시스템 핸드북



장호준/B5/240쪽/10,000원

외국에 비해 음향에 관한 뚜렷한 전문 교육 시설이나 전문 서적이 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방송실에서부터 교회, 공연장, 기업체, 방송국, 음반 녹음실, 개인 작업실 등 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음향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서로 저자의 수 년간의 경험으로, 기기의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음향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쉽고 논리적인 이해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돈 걱정 없는 가정

래리 버켓/조성표/A5신/304쪽/7,000원/CUP

최대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신용카드 사용, 예산 수립, 퇴직 계획의 수립, 자녀들의 재정 훈련, 투자 비결 등 재정 사용의 실제적인 측면을 다룬다.



호칭과 지칭 예절

류재봉/A5신/424쪽/10,000원, 13,000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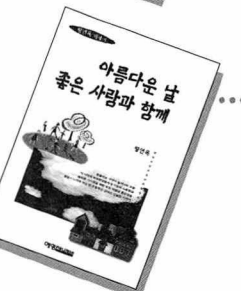
이 책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호칭과 지칭을 써야할지 궁금해 하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찾아보고 익힐 수 있도록 쓰여졌다. 혼탁해진 호칭과 지칭에 대한 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날 좋은 사람과 함께

황연옥/A5신/232쪽/7,000원

흔들리는 가정이 늘어나는 요즘 이 시대의 학부모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진솔한 이야기. 전편에 흐르는 감동이 교향의 숲 속을 거닐 때처럼 안온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



웃음건강학

김용운/A5신/224쪽/6,500원

놀라운 웃음요법의 실재를 파헤친 감동의 최신 건강 리포트. 이 책은 웃음 넘치는 생활, 웃음 가득한 인생, 건강한 하루를 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예영커뮤니케이션

10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 267-0161~4 출판유통사서부 T. 325-7971

처녀작과 최신작은 비록 17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있지만 내용상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자매편이라 할 수 있다. 처녀작에 비해 최신작은 한결 향상된 논문을 써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용한 데다가 나의 학문적 관심이 더욱 넓게 번져간 것으로 보인다.

혈연주의 원리와는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화랑도가 골품제의 분열적 성향을 획적으로 묶어주는 사회완충제로서의 구실을 한 것으로 결론짓게 되었다.

17년간 써온 신라사 논문

지난해 가을 나는 《신라사회사연구》(일조각)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최신작은 처녀작을 발표한 뒤 17년 동안 쓴 신라사 논문을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나의 관심은 골품제도와 화랑도의 문제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모두 네 편으로 된 이 책의 제2편이 '신라사회론'이고, 마지막 편이 '화랑도와 신라사회'인 것만 보더라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처녀작을 발표한 이후 나의 관심은 줄곧 신라사회의 주변부로 번져갔고 따라서 그만큼 연구주체인 골품제도의 핵심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화랑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처녀작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확대 내지 체계화하지 못한 채 시종 지엽적인 것에 매달렸을 뿐이다.

이처럼 처녀작과 최신작은 비록 17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있지만 내용상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녀작은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열정에 이끌려 비교적 단기간 내에 써 내려갈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막 눈뜨게 된 사회인류학 및 사회학의 이론을 골품제도와 화랑도의 문제에 원용하는 데

열중했다.

또한 사료의 적발 및 고증에도 크나큰 흥미를 느끼고 이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다. 그 결과 처녀작은 이론의 원용과 사료에 대한 고증으로 뒤범벅이 되어 독자에게는 다소간 거친 느낌을 주는 책일지도 모르겠다.

처녀작에 비한다면 최신작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열정도 한결 식은 중년기에, 더욱이 그때그때 사양하기 어려운 요청에 따라서 마지못해 쓴 논문이 대부분이다. 골품제도와 화랑도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세계학계의 신분제사회 비교연구라든가 혹은 성공적인 청소년단체, 청소년운동의 비교연구에 유익한 사례를 제공해야겠다는 나의 최초의 학문적 목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해갔다. 이렇게 된 데는 어쨌든 처녀작보다는 한결 향상된 논문을 써야만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용한 데다가 한편으로는 나의 학문적 관심이 신라사에서 백제사로 혹은 사론류(史論類)로 번져간 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이론 섭취시기의 왕성한 의욕과 발랄함을 상실한 것이 근본원인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사실 나는 그 동안 역사연구의 원천이 되는 사료의 검증작업에서도 차츰 멀어졌다. 그리하여 마치 농촌사회의 생생한 실상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게 된 부계지주(不在地主)와 같은 꼴이 되어버렸다. 나는 대지에 발을 붙이지 못한 채 허공에 떠 있는 존재가 된 듯한 단절감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처럼 최신작은 억제하기 어려운 권태기의 허탈감 속에서 당초의 구상과 목표를 사실상 포기해야만 했던 흥작기의 산물이다. 이 기간 중 내가 다소간 힘을 기울인 것이 있다면 역사적 현상이나 사실이 될 수 있는 한 명쾌하게 묘사, 서술하는 일이었을 뿐이다. 처녀작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읽혀지는 책이라기보다 오히려 가끔 인용되는 책이라면, 최신작은 어쩌면 그 반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매우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이 점에서 스스로 위안을 느끼고 있을 따름이다. ❖